

윤석남전

6월 8일~14일 금호미술관

몸으로 느껴지는
어머니의 실체

윤석남 「어머니 3 : 요조숙녀」
나무 위에 아크릴릭 150X180cm 1993



언젠가 나는 자신에게 매우 부끄러운 질문을 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 나 역시 적지않이 연루되어 있던 격동하던 80년대 어느 무렵이었을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보다의 미있고 보다 진보적인 삶을 살기를 바랬고, 그래서 가능한 나 자신 모두를 투여하여 그러한 삶에 가까이 다가가려 했었다. 어느날 갑자기 다음과 같은 질문이 다가왔다. 그렇다면 나의 어머니의 삶은? 왜냐고 고통스러운 질문이었던 것 같다. 어렵사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것에 힘입어 그나마 이렇게 무언가를 추구하고 나를 긍정하고 살고 있으며 그것으로 비로서 의미있으려 할 수 있었다.” 아직도 약간은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정당한 때문에 몸과 마음으로 실감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답변이었고 때문에 항상 부끄러움과 떳떳치 못함을 느끼게 하는 답변이었다.

윤석남의 이번 전시는 나로 하여금 이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나를 다시한번 대면케 하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80년대를 통해 극적이기까지한 적지않은 어머니들을 그림을 통해 만나왔다. 하지만 이번 윤석남의 전시회에서 비로서 나는 한순간 문득 어머니가 느껴지곤 할 때의 몸으로 다가오는 어머니에 대한 실체감, 어머니의 냄새라고 할 수 있을 무엇을 작품으로부터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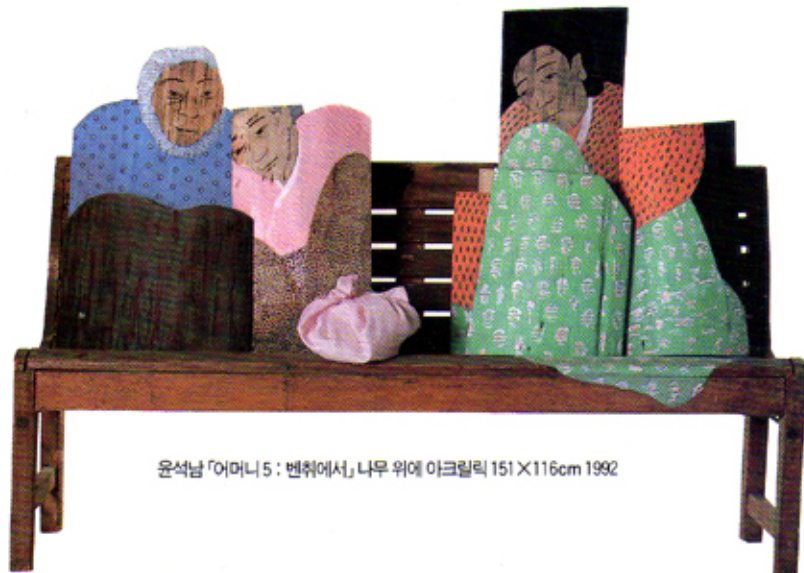
아마 이러한 실체감이 가능했던 것은 적어도 우리 남성들에게는 절대절명의 명제로 다가오는 어머니에 대한 한 여성으로서 즉 딸로서 혹은 자신 또한 어머니로서 윤석남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보다 착잡한 관계 때문이 아닌 가 싶다. 아니 보다 정확히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끈질긴 영향력을 미치는 그 관계의 중요성에 너무나 당연히 착목할 수 있었던 삶에 뿌리박은 그녀의 정직한 감성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의 세세한 영향력을 경험의 혼돈 속에서 길어낼 수 있었던 지속적인 사유의 노력 또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관례화의 늪에 빠지거나 주체로서 소화하지 못한 채 만들어낸 온갖 인공화되고 상투화된 이미지들의 자극과 권위에 개의치 않고 나름대로 새로운 길(특히 전통을 자기필요에 따라 해석해 들이는 다양한 방법들, 색채사용, 나무결에 물감의 스며들음 운용하는 방식, 붙여나감과 모여냄의 여성적 장인성, 서있음의 독특한 해석 등등)을 열어가갈 수 있었던 용기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로서는 어떤 갈등을 느낀다. 그것은 그녀가 제시하는 상이 지금으로부터 20-30년 전의 어떤 과거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그 지점은 지금의 어머니들이 표출되기 위해서라도 아니 너무도 전형적 지점으로서 억눌림의 귀환을 경과하기 위해서라도 꼭 드러나야 했을(따라서 작가가 보다 집중적으로 탐구해야 했을) 어떤 지점이다.

내가 느끼는 갈등은 무언가 예감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친근한 장면을 실제로 대면했을 때의 놀람과 충격을 피어나가는 즐거움으로 혹은 회한으로 전이시키는 어떤 상(아마도 그리하여 몸석에 들어박혀 나를 실제로 이끄는)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들 딸들 혹은 달리 명명된 여성들은 마치 감자를 쥔 때 뿌리에 주렁주렁 매달려 이끌려 나오는 듯한 감정의 나팔을 체험케 하고는 더 이상의 전개를 멈추는 듯하다. 전시의 적지않은 결함으로 보이는 다양한 산만함(도식성, 주체의 일관성 부족, 지적 장악력의 부족, 디스플레이의 실패 등등)은 이와 관련된 결함으로부터 오는 혼란에 기인한 듯 싶다.

(이영욱/미술평론가)



윤석남 「어머니 5 : 벤치에서」 나무 위에 아크릴릭 151 X 116cm 1992